

한명회는 자신의 셋째 딸을 세조의 차남 해양대군에게 출가시켰는데, 그녀는 아들 인성대군을 낳고 산욕(産褥)으로 인하여 요절(夭折)하고 만다. 그 후 외손자 인성대군마저 일찍 죽으면서, 한명회는 사위인 해양대군과 다소 절그러운 위치에 된다. 그러나 이 해양대군이 곧 예종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한명회는 이조판서의 자리에 오르고, 곧이어 상당군(上黨君)에 책봉되고 이어 병조판서가 되었다.

그 후로 황해, 평안, 함길, 강원도 체찰사(體察使, 군무를 맡아보던 재상급 벼슬) 등을 역임하였으며, 승록대부를 거쳐 보국숭록대부(정1품)로 승진했다. 1459년에는 황해, 평안, 함길, 강원 4도의 병권(兵權)과 관할권을 가진 4도 도체찰사로 임명되었다. 또한 당시 역할이 강화된 승정원과 6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등의 총칭), 변방 등에서 왕명 출납권과 인사권, 병권 및 감찰권 등을 한손에 거머쥐게 되었다. 북방의 야인(野人)들을 토벌한 뒤 국방 경계를 견고하게 하였다는 공으로 한명회는 1461년 상당부원군에 임명되었고, 병조판서를 겸했다가 우의정이 되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한명회는 세조와 사

강성훈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훈 철학터비'



출세의 달인들-한명회(2)

돈을 뺏어 딸을 예종의 왕비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다른 딸을 성종의 비로 만들어 딸들을 2대에 걸쳐 왕후로 삼게 했다. 또한 권람, 신숙주 등과 인척관계를 맺고 세조 정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인척 관계에 의한 요직 장악이라는 인사폐단을 낳기도 했다.

예종 1년에는 남이 장군(충신의 대명사), 강순(康純, 영의정 때 무고로 몰려 사형)의 모역사건을 성공적으로 다룬 공으로 영의정이 되었다. 불편한 관계로 있던 사위 예종이 갑자기 죽자 한명회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까지 정부를 맡아보았으며, 이때에도 병조판서를 겸하며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그 후, 자신의 넷째 사위인 성종이 즉위하자 또다시 공신(功臣)의 명칭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딸인 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권세도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인 폐비 윤씨 폐출사건(윤씨가 폐출되어 사약을 받아 사망. 아들이인 연산군이 보위에 올라 여러 신하들과 후궁들을 죽이고 위왕을 보낸)에 관여하였다가 나중에 부관참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명회는 한강 가에 지은 암구정에서 명나라 사신을 사사로이 접대한 일로 탄핵되어 모든 관직에서 삭탈되었다. 그리고 1487년, 73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스스로는 고향인 충청북도 정주에 묻히기를

희망하였으나 천안군(현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에 안장되었다.

앞서 말한대로 한명회는 연산군 대에 와서 12간신(奸臣)의 한사람으로 지목되어 관작을 추탈 당하였으며, 그 시체가 무덤에서 꺼내져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 시체는 토막 내어졌으며, 목은 잘리어 한양 네거리에 걸린 것이다. 그러나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 신원(伸冤)되어 복관(復官)되었다. 한명회의 큰딸은 세종의 서녀(庶女) 정현옹주의 아들 윤반과 혼인을 하였고, 그의 작은딸은 신숙주의 맏이들 신주와 혼인하였으며, 셋째 딸은 예종의 정식 왕비(장순왕후)가 되었다. 막내딸은 성종의 정식 왕비(공혜왕후)가 되어 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이 딸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역사상 대표적인 간신(奸臣)의 이미지로 각인된 한명회.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 그에 대한 재평가, 재조명 여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신의 딸들까지 왕가 및 권문세족과 혼인하게 하여 권력을 이어가고자 했던 한명회, 과연 미래의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최근 카드 배송을 방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카드 배송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유도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해 휴대폰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다. 이 과정에서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과 협박이 이어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체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안내

1.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 문자 발송
2. 카드 배송원이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준다면 가짜 번호 안내
3. 전화를 걸면 카드사 직원 사칭범과 연결
4. 휴대폰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5. 설치 이후 금융정보 탈취 및 무단 요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방법 및 행동 요령

1.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은 의심부터 하십시오. 카드사는 고객에게 먼저 카드 배송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2.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카드 뒷면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이스피싱범은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제공해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3. 문자메시지에 기업로고, 안심마크, 카카오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보이스피싱 메시지에는 공식 로고나 인증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카드사 및 공공기관은 절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 또한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라디오 공익광고, 카드사 ARS 멘트, 팝업 및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특히 60대 이상 여성 대상 맞춤형 안내 강화, 배송 시스템 점검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카드업체에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경각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박민영

독자 투고

최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다치고 42명이 대피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10일에는 인천과 서울 노원구 등 아파트 화재로 40대 남성과 9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피 또는 구조요청 방법은 무엇일까? 미리 한 번 생각해 놓는 것과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나 소중한 가족, 이웃의 생사를 결정짓

아파트 화재 시, 올바른 대피요령 숙지를

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는 주로 연기 흡입이나 화상, 추락(대피 중 사망) 사례가 많다.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화재 사망자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피 중 사망하는 경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단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내에 대기하며 구조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자택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이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나 자택 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염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평상시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피난시설의 유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방화문으로 이뤄져 있는 대피공간과 창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이뤄져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음력 4월 1일)

 48년생 분명한 거절로 후회를 막아내자.60년생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걸어보자.72년생 도전과 목표 합력점을 받아낸다.84년생 약속한 장소에서 주안행세해보자.96년생 거절 당할까 두려움 땅을 쳐야 한다.	 49년생 신명 나는 놀이 동산으로 돌아가자.61년생 정 많고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자.73년생 눈치 보지 않는 자유를 가져보자.85년생 고도의 집중력 섬세함을 더해보자.97년생 잠자던 도전정신 지가기를 파보자.	 50년생 이왕이면 다홍치마 맛은 기본이다.62년생 자타공인 최고소리를 들어보자.74년생 원하는 거에 대항이 적혀진다.86년생 별이 다섯 개 소원 성취 할 수 있다.98년생 농장 부리는 대저 막으랴 못 고친다.
 51년생 천천히 느리게 심표를 찍어내자.63년생 굶이 굶이 사연 자랑으로 변해진다.75년생 피곤했던 살림 여유가 다시 온다.87년생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 나서보자.99년생 부러움의 대상 겸손하게 받아내자.	 52년생 깨 북는 재미 분위기는 달콤하다.64년생 정해진 수순 예외가 없어야 한다.76년생 싸움을 피하는 감정이 되어보자.88년생 장군에 명군 강단으로 앞서가자.00년생 저도 그만인 승부패기를 들어주자.	 53년생 살수라도 할까, 조심을 더해보자.65년생 등 떠밀린 자리 복방석이 되어준다.77년생 식탐도 단속에 거침없이 가져보자.89년생 틀리지 않은 지적하기를 숙여내자.01년생 고집이 만든 결과 만배가 불러진다.
 54년생 고맙다 인사 받는 땅을 흘러보자.66년생 편견을 지워내야 사랑이 보여진다.78년생 여기저기 칭찬 기분은 구름을 탄다.90년생 혼자가 아니다. 동업자를 구해보자.02년생 서두르면 손해 기다림을 즐겨보자.	 55년생 시간 낭비 없는 갈광함을 보여내자.67년생 좋아하는 표현 속으로 해야 한다.79년생 달라하는 부탁 외롭고 쓸쓸하다.91년생 냉전은 끝내고 화해가 무르익는다.03년생 순서에서 밀려난 조연이 되어야 한다.	 56년생 뜻 깊은 자리에서 상을 기대해보자.68년생 심원했던 표정 무지가 떠난다.80년생 끈질긴 노력에 세상에 알려진다.92년생 배워가는 과정 모방생이 되어야 한다.04년생 지적보다는 격려, 품으로 안아주자.
 57년생 청춘 열정으로 새로운 행을 개가자.69년생 이름다운 시선 가슴이 들떠진다.81년생 경합이 기르려준 지혜를 깨내보자.93년생 선택의 기로 겨울철을 더해보자.05년생 말하는 대담보다 실천에 옮겨보자.	 58년생 미루고 있던 시작 앞으로 당겨진다.70년생 기운이 풀릴 때는 소식을 들어보자.82년생 보물창고 지갑 든든하고 뿌듯하다.94년생 서열 무시하고 대장 노릇 해보자.06년생 걱정 근심은 언제 그랬나 지워진다.	 47년생 게으름을 파웠던 후회가 남겨진다.59년생 도망가고 싶었던 부진을 벗어나는다.71년생 반대도 성과도 모른 척 지나치자.83년생 갈하고 있다에 밑줄을 그어내자.95년생 감동은 배가 되고 슬픔은 잊혀진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